

## 영어평가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독교윤리학적 과제\*

신동일\*\* (중앙대학교 교수) · 김나희 (중앙대학교 강사)

### I. 서 론

### II. 영어교육평가자의 직업윤리성 배경

1. 부적절한 시험사용
2. 영어평가전문가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
3. 영어평가자의 직업 윤리성
4. 윤리규범 및 지침

### III. 직업윤리교육의 시작

### IV. 결 론

\* 본 연구는 2009년 5월 16일 기독교문연구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 발표되었던 논문으로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

\*\* 제1저자: 신동일, 제2저자: 김나희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ethical awareness of English language testing and to promote issues of professional ethics by christian educators in Korea. Until the last decade, language educators and testing professionals have not been aware of ethical dimensions of test effect. In this paper,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est impact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ethical concerns. Christian educators are encouraged to understand the meaningfulness of ethics embedded in testing professionalism, and it is stated that professional ethics movement should be highly valued in their workplaces.

**Key words** : English language testing, Korea, professionalism, christian educators, professional ethics

---

## I. 서론

시험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고 있다. 속도와 성취로 성장한 한국의 교육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검증되지 않은 공부법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처세술이 넘치고 있다. 세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기동되면서 언어학습, 그 중에서도 영어능력과 영어시험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개인학습자 수준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재정과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sup>1)</sup> 영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배우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선의와 정직이 부족하며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인한 부정직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교육관행이 되고 있다. 일선 교사가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거나 학원에 시험내용을 유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수험자는 아예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뉴스가 등장해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시험은 학업성취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건강한 부담감이 되지 못하고, 절제가 없는 경쟁심과 이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시험의 압박이 커져가면서 시험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개발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험 전문가의 기능적 교육과 양적 성장이 진행된 만큼이나 직업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터라, 고부담 입시현장과 교실평가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끊임없이 고발되고 있다.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평가자의 전문성, 심지어 대학의 입학사정관 업무마저 그 공신력을 의심 받고 있는 형편이다.

선다형 문항을 이용해서 영어지식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시대에서 의사소통능력, 발화능력, 수화능력, 심지어 잠재력이나 소질을 평가해야 하는 업무가 학교나 기업현장에서 빈번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검증되지

1) 언어학습과 시험의 속성이 비슷하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영어시험에 주목하기로 한다.

않은 원어민감사, 평가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교원, 또한 국가인증 혹은 국제공인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포장된 정체불명의 평가기관에 의해 무사안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업과 학교에서 영어말하기 능력, 영어를 통한 문제해결 혹은 수행능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문항이나 지침서 제작과정, 채점방법, 채점자교육방법에 관한 규범화된 문서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즉흥적인 구두회의로 시험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다.

역사적으로 시험이란 제도는 부당한 권력을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어 왔는데,<sup>2)</sup> 한국 사회에서는 개발과 시행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기능적 상황을 유도한 영어시험은 없었는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험을 만들고 시행시킬 수 있는 기능적 논의는 많지만, 의미, 목적, 윤리성 등에 관한 고민이 교육공동체 안팎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시험은 학습(자)을 돕는 손이 되어야 한다. 시험을 통해서 학습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정직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는 교육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안에서 본 논문은 영어평가자의 직업윤리성 문제를 기독교적 성찰로부터 제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내외 시험의 오용사례와 윤리규범 기준을 관련 문헌의 탐색을 통해 고찰하고 영어교육평가 분야의 윤리 문제를 학술담론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성의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찰해 보았다.

2) Spolsky, B., *The ethics of gatekeeping tests: what have we learned in a hundred years?*, *Language Testing*, 14(3), 1997, 243.

## II. 영어교육평가자의 직업윤리성 배경

### 1. 부적절한 시험사용

데이비스<sup>3)</sup>는 평가의 기능이 선별(discrimination)이라면 평가는 항상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시험이 사용된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또는 교육적인 선별 때문에 시험이 도구로서 사용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도 등장한다. BC 1100년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쉬블렛(shibboleth: 시냇물) 발음을 요청하고, 시블렛(sibboleth: 무거운 짐)으로 발음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린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모든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무찔러버렸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내가 강을 건너가겠소”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은 그에게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쉬블렛”이라고 말해 보라고 했고 그가 “시블렛”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4만2,000명이나 죽었습니다.<sup>4)</sup>

성경에 등장한 무자비한 시험의 사용은 현대에서도 도덕성이 상실된

3) Davies, A., *Principles of Language Testing*(Oxford: Blackwell, 1990), 25.

4) 사사기 12:4-6

채 수험자들을 압박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이민자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받아쓰기 언어시험을 1960년대까지 사용되었다.<sup>5)</sup> 시행 초기에 임의의 유럽어 50개 단어를 받아쓰게 했지만 이후에 유럽어로 규정된 모든 언어로 확장되었다. 이 시험에서 주목할 점은 받아쓰기 시험을 통해서 이민자의 선별이란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개인에 대한 배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험이 시행되기 전, 이미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이민국에 전달되며 시험 이전에 선별 과정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시험은 오직 탈락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언어시험에 내재된 정치적 의도는 객관적인 시험의 기체에 교묘히 숨겨졌다.<sup>6)</sup>

이러한 비윤리적 시험의 선별적 기능은 미국의 이민자 대상 언어시험에서도 사용되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에서는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가 극심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언어시험이 시행되었다.<sup>7)</sup> 1917년에 시험 시행이 법으로 통과되고 16세 이상의 이민 신청자들은 성경의 짧은 단락을 신청자들의 모국어로 읽게 하는 언어시험에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비윤리적으로 이민자의 신청을 교묘하게 박탈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처럼 불공정한 선별을 목적으로 언어시험이 계속 방치되고 주목받으면서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 시험의 윤리성 측면의 고찰이 시작되었다.<sup>8)</sup>

5) Davies, A., *Demands of being professional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4(3), 1997, 328.

McNamara, T. F., *20st century shibboleth: language tests, identity and intergroup conflict*, *Language Policy*, 4(4), 2005, 1-20.

6) McNamara, T. F., & Roever, C., *Language Testing: The Social Dimension*(Blackwell Publishing, 2006), 149-202.

7) Wiley, T. G. *Literacy and Language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2005)

국내의 영어시험은 어떤가? 사사기 시대처럼 발음평가 하나로 사람의 생명을 뺏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성적을 높이고자 한다. 기독교교육자들은 정직 운동(커닝추방운동, 무감독시험)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정직한 교육평가의 관행을 총체적으로 바꾸진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목고나 대학 진학, 취업이나 승진, 유학 등의 목적으로 경쟁적인 시험준비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윤리적 책임감 없이 시험을 성급히 개발하여 부적절한 영리를 취득하는 단체가 많다. 시험결과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윤리적 관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험시행과 준비과정에서 소송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일본 문부성 초청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1차 영어시험 문제 가운데 일부 문항이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문제집에 실린 문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서울대는 시험을 주관한 국제교육진흥원측에 피해자 구제를 요청하였다. 인터넷에서 시험 문제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항의성 글이 쏟아졌는데, 결국 7개 문항이 서울대가 주관하는 영어능력측정시험인 텡스(TEPS)의 기출 문제와 동일하고 3개 문항이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텡스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구성단계에서부터 기출문제를 별도 관리, 재출제의 오류를 차단하고 있으나 문제검토 단계에서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중에서 문제집이 유통되고 있었고 외부시험의 문항도 그대로 출제한 문항개발자 역시 윤리의식이 부족했다.

2007년에 김포외고 입학시험 중 53문항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sup>9)</sup>

8) Hawthorne, L. *The political dimension of English language testing in Australia*, *Language Testing*, 14(3), 1997, 248.

9) '김포외고문제 통제로 유출', 동아일보, 2007년 12월 31일자, <http://www.donga.com/fbin/out->

김포외고 입시에는 모두 80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 중 20문항은 영어 듣기문항이었다. 학원 측으로부터 출제 문항을 넘겨받은 학부모들은 당시 입학시험 당일 새벽에 학원장의 연락을 받고 자녀들을 학원으로 데려가 유출된 문제를 풀게 했다. 경찰은 문항 유출자 뿐 아니라 문항을 넘겨받은 학원 관계자, 학부모까지 입건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수학능력시험(Scholastic Aptitude Test: SAT) 문제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sup>10)</sup> 강남의 SAT 전문학원의 강사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기록하거나 문제지를 일부 절단하여 유출하였다. 강남 SAT 학원가에서 이런 일은 비밀비재한 것으로 전해지며 문제의 유출 이유는 SAT 기출문제를 확보해야 ‘족집게 강사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물론 국내에서 SAT와 관련된 부정행위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동안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외국어 고등학교의 SAT 시험장이 폐쇄된 적도 있고, 지난 2007년에는 응시자 900명의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sup>11)</sup>

이처럼 국내외에서 비윤리적으로 영어시험이 시행되고 준비되는 사례는 언론자료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험의 부정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왜곡된 교육열이나 학벌지상주의를 비판하거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험의 개발과 시행, 시험점수의 사용과 시험 대비와 같은 교육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직업 윤리성 문제도 자주 지적되고 있다. 영어시험의 시행과 사용에 관한 부적절한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영어교육 및 평가전문가의 역할 및 사회적

put?n=200712010133

10) ‘또... 강남 학원강사가 SAT 시험지 유출’, 한국일보, 2010년 1월 24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2422064821980.htm>

11) “SAT 강사가 전하는 현실”, 매일경제, 2010년 1월 24일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42212>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2. 영어평가전문가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

평가자란 시험의 개발과 사용 그리고 시험준비의 각 단계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의미한다. 전문 직종으로서 평가자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교육평가 활동을 수행하며, 성과 기준에 부합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이다. 포괄적 의미에서는 시험을 출제하는 연구자 혹은 교사, 시험의 도입을 결정하는 정책입안자, 시험 시행에 재정을 부담하는 정부기관, 학교에서 시험의 시행을 결정하는 교장, 시험도입을 지지하는 학부모까지 평가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언어평가자 집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sup>13)</sup> 전통적 관점 즉,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언어시험을 시행하는 평가자 집단은 비교적 엄격한 감독관의 위치를 감당하며 수험자는 표준화된 시험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한다. 이와 달리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에서는 평가자와 수험자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존중과 이해가 우선되기 때문에 평가자는 감독관의 위치보다는 상담자 또는 조력자와 같은 위치에서 수험자를 돕는다.

언어평가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 진행된 민주적 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중의 참여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험 시행과 사용 현장에서 존재했던 성별 혹은 인종간의 차별 문제, 특정

12) Shohamy, E., *Democratic assessment, Language Testing*, 18(4), 2001, 373.

13) Hamp-Lyons, L., & Lynch, B. K., . Perspectives on validity: A historical analysis of language testing conference abstracts. In A. J. Kunnan (Ed.), *Validation in language assessment: Selected papers from the 17th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Long Beach*(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Inc. 1998), 253-276

집단의 수험자에게 공정하지 못했던 시험 시행이 법정 소송에서 다뤄지기 시작했으며 언어평가자에게 시험의 시행, 결과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다. 시험이 갖는 부적절한 권력의 속성을 비판하며, 언어평가자의 직업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sup>14)</sup> 언어평가자 내부에서 평가자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평가자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언어평가자의 사회윤리적인 책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15)</sup> 첫째, 일반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적 책임관이다. 이것은 전문가, 개인, 대중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세 집단 간의 계약처럼 정의된다. 언어평가자는 시험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둘째,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험의 의도, 효과, 결과를 알리는 것에 대한 책임이다. 시험사용의 여러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시험 사용자와 일반인들에게 알리며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셋째, 평가자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시험의 사용과 결과에 대해 평가자는 모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엄격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부여한다. 넷째, 평가자는 시험의 부적절한 사용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평가자의 책임이 시험의 의도와 효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의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하고 그것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평가자는 자

14) *ibid.*

Hamp-Lyons, L., *Washback, impact and validity: ethical concerns, Language Testing*, 14(3), 1997, 295.

Lynch, B. K., *In search of the ethical test, Language Testing*, 14(3), 1997, 315.

15) *op. cit.* Shohamy, E., *Democratic assessment, Language Testing*, 18(4), 2001, 373.

신이 만든 시험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다섯째, 상호 협력의 책임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평가자는 엄격한 감독관의 위치를 감당하며 수험자는 다소 수동적인 정체성을 가졌다. 상호 협력의 책임을 공유하는 평가관에서는 평가자, 수험자, 학부모는 서로 평가의 권한을 공유한다. 또 각기 다른 평가 주체들은 수험자와 상호 협력하여 평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며 지식을 형성한다.

### 3. 영어평가자의 직업 윤리성

언어평가자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평가자가 갖는 전문성에 기인한다.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론은 전문가에게 윤리의식을 부과하며 옳은 실행과 관습의 지침을 제공한다.<sup>16)</sup> 이와 같은 언어평가자의 윤리적 책임론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으로 더욱 교육현장에서 강조되었다. 국내에서도 상대주의적 존재론으로 개인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에 중점을 두는 언어평가관이 새롭게 제안되기 시작했고, 자기평가, 동료평가, 성찰일지 등으로 학습의 과정과 개인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는 수행평가, 대안평가가 보다 빈번하게 여러 교육현장에서 시도되었다. 평가자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상대주의적 윤리관으로 학습자와 평가자 내부의 주관성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대주의 인식론은 윤리와 공정함의 문제를 지역상황에 맞는 행동규범으로 축소화시킨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상대주의적 원리를 적용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을 간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규범에서 전통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아동학대, 학생체벌의 윤리적 판단이 상대주의적 윤리관에서는 부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시험의 비윤리적 사용과 부정적

16) House, E., Schools for sale(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1998), 25.

한 시험 준비에 대해서도 상대주의적 입장은 비윤리성의 논의를 상대적인 전통과 지역적인 가치의 문제로 왜곡시킬 수 있다. 결국 시험의 공정성과 평가자의 윤리적 책무성을 보편적으로 확립할 수 없게 하며 절대적 윤리의 부재를 초래시키게 되는 것이다.<sup>17)</sup>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교육현장에서 언어시험의 공정한 사용과 평가자의 직업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비스<sup>18)</sup>의 윤리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시험의 사용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험을 개발하는 공학적 정체성을 가진 평가자가 아니라 시험의 사용과 결과에 책임을 갖는 직업 윤리관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교육평가자는 직업을 수행할 때 의식적으로 윤리적 규범과 지침에 관한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code of ethics) 혹은 실행 규범(code of practice)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업 윤리관 교육은 관련 전문가 공동체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전문가 공동체의 구성원 입회, 자격부여와 같은 전문가 활동의 권한 부여 시 직업 윤리관에 관한 교육이 필수자격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공동체 내부에서의 직업 윤리성에 관한 논의를 연례 학술대회 개최, 학술저널과 소식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의 출판,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의 활동을 통해 확장해야 한다. 전문가들 스스로가 윤리적 관점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학술 공동체 내부 안에서 공유하고 확산시킨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행동강령과 실행규범은 시간이 지나거나 지역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또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직업 전문성은 시공간을 막론하고 당시 약속된 규범에 따

17) op. cit., Hamp-Lyons, L., Washback, *impact and validity: ethical concerns*, *Language Testing*, 14(3), 1997, 295.

18) op. cit., Davies, A., *Demands of being professional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4(3), 1997, 328.

라 행동하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을 수행하는 현장 안에서 윤리적 규범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실행 규범을 전문가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천 가능한 직업 윤리성 확보안이라고 할 수 있다.

#### 4. 윤리규범 및 지침

전문가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윤리 지침과 관련 교육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전문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의료, 법률, 경영, 교육, 생태계, 유전공학, 컴퓨터 등의 영역에서 윤리규범의 제정 또는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경락<sup>19)</sup>은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윤리적 갈등에 대한 마땅한 윤리지침서 및 교육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 한정화<sup>20)</sup>는 기업윤리를 제시하며 기업 내 공식적인 윤리강령과 교육에 관한 필요를 제시하였다. 송인규<sup>21)</sup>는 생태계, 유전공학, 컴퓨터 영역에서의 과학기술윤리를 언급하며 절대주의적 윤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문시영<sup>22)</sup>은 기독교사회윤리학의 관점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보완 및 제안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으로 윤리경영을 성찰하기도 했다.<sup>23)</sup> 김상득<sup>24)</sup>은 의사와 환자의

19) 이경락,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0권(제2호), 2006, 145-168.

20) 한정화, 「성경적 기업윤리」,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권(제1호), 1996, 81-100.

21) 송인규, 「미래 사회와 기독교 윤리」,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4권(제4호), 1999, 23-86.

22) 문시영, 「정보통신윤리교육, 그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0집, 2005, 59-81.

23) 문시영, 「윤리경영, 그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7집, 2006.

24) 김상득, 「의사와 환자의 윤리」,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4권(제2호), 1999, 73-97.

의 윤리적 관계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정유석<sup>25)</sup>은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의 위기를 기독교 관점의 전문직 윤리관 입장에서 진단하였다. 양복만과 문승태<sup>26)</sup>는 일반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언어평가 영역에서는 기독교적 성찰 안에서 제시된 전문성과 윤리성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표적인 윤리규범으로 국제언어평가협회(International Language Testing Association: ILTA)가 제정한 ILTA 윤리 및 실행규범<sup>27)</sup>이 있다. 유럽언어평가협회(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ALTE) 역시 실행규범<sup>28)</sup>을 제정했다.

각 윤리규범을 살펴보면, 우선 ILTA 윤리규범은 9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었고, 실행규범 역시 7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윤리규범의 기본적인 관심은 수험자의 보호이다. 우선적인 세 가지 원칙에서는 평가자와 수험자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평가자는 수험자를 차별하거나 위협하는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험관련 연구를 할 때는 표준 동의 절차에 따라 수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가자는 수험자의 개인 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정보열람을 할 수 있다. 나머지 6개 원칙들은 언어평가자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술한다. 몇 가지만 요약하면, 언어평가자는 자신의 기술을 수험자에게 해를 주는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험개발자의 사회적 책임

25) 정유석, 「한국 의료의 갈등상황 - 전문직 자율성의 위기」,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6집, 2003, 57-77.

26) 양복만, 문승태, 「교사들의 직업윤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발행처: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0권(제4호), 2007, 103-119.

27) ILTA, *Code of Ethics for ILTA*, 2000, [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7&Itemid=47](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7&Itemid=47)

ILTA, *Code of Practice*, 2007, [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22&Itemid=133](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22&Itemid=133)

28) ALTE, *The ALTE Code of Practice*, 1994, <http://www.alte.org/cop/index.php>

이 수험자에 대한 책임과 충돌될 수 있는데, 이 때는 평가 관행에 반대하는 개인의 양심을 선택할 수 있다.

실행규범은 시험개발과 시행 그리고 점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개발자가 명시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이 무엇이며 자세한 문항세부계획서를 개발하고 시험 시행과 점수에서의 균등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시험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부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갖는 장점과 약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리고 컴퓨터에 기반을 둔 시험에 관한 특징을 예시로 들고 있다. 수험자 권리 부분에서는 수험자의 열 가지 권리를 열거하며 시험과 시험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이는 권리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배려되고 수험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험자의 책임도 열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시험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책임, 시험 시행 때 협력해야 하는 책임 등이 열거되었다.

ALTE 실행규범<sup>29)</sup>은 주로 평가활동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자의 책임으로 시험개발, 시험의 적절한 선별, 시험결과와 해석을 공정하게 수험자에게 알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ILTA 규범에 비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시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26개의 유럽어를 대표하는 31개 기관의 시험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평가자는 자기평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평가행위가 실행규범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윤리 규범과 직업 윤리성은 선발과 구별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부담(high-stake)시험 뿐 아니라 학교와 교실에서 이뤄지

29) *ibid.*

고 있는 교사 주도의 시험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어디서든 평가자는 시험점수의 해석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시험이 그 자체로 기계적인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윤리적 지침과 규범의 통제 안에 두어야 한다.

국내의 교육단체나 평가기관에서는 영어평가자를 위한 윤리적 기준을 공식적으로 설정한 선례를 찾을 수 없다. 영어시험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미 선발과 배치의 목적으로 많은 학교와 기업 등에서 성적표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험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부적절한 시험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직업 윤리성이 요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여전히 한국의 영어평가 전문가들은 심리측정학적인 전통 안에서 기능적인 시험 속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영어시험들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되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고발 수준의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교사교육, 평가자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안이 현장 안에서 제안되지 못하고 있으며, 윤리규범, 실행규범의 문서화 작업도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으로서는 영어평가 활동을 위한 윤리규범을 문서로 옮기고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문이 생긴다. 정직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겠지만 정치사회적인 캠페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규범 문서화 작업과 전문인력 교육이 정직의 마음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 아직도 국내에서 영어교육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윤리적 평가활동의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어디서 이러한 직업윤리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까?

### III. 직업윤리교육의 시작

목적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그 가치가 다르겠지만 시험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는 공평함이다. 공평해야 교육적인 영향력, 학습의 질에 긍정적인 연계가 생긴다. 공평한 시험은 타당한 시험이라는 측정용어로 자주 대치되는데 보다 알기 쉬운 대중적 용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험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시험결과에도 민감한 시험이다. 시험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무난한 판정을 받는다 해도 부적절한 역류현상으로 윤리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평가 자체의 목적(선발, 배치, 진단, 학업성취도 검증)은 퇴색되는 것이다. 평가도구가 타당하게 사용되려면 시험의 개발과정에서부터 그 사용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되면 그 일에 관련된 평가자가 책임을 지는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어시험의 비윤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는가? 데이비스<sup>30)</sup>가 제안한 것처럼 윤리적 규범, 실행 규범을 문서화시키고 크고 작은 교육현장에서 평가인력에게 윤리교육을 시킨다면 비윤리적 관행은 얼마나 방지될 수 있을까? 규범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윤리의식은 상부기관의 강요와 정치적인 힘으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공동체가 없고 경쟁적이고 위협적인 교육문화가 지배적이라면 규범을 약속하고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의료, 법률, 과학 분야의 전문 직업과 달리 언어교육과 평가업무를 감당하는 인력은 스스로도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본인들에게 요구되는 직업 윤리성은 극히 낮은 구속력을 갖춘 한다.<sup>31)</sup>

30) op. cit., Davies, A., *Demands of being professional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4(3), 1997, 328-339.

앞서 언급한 부정직한 시험의 사용과 준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신과 불공평의 정서가 남아 있는 영어교육, 특히 영어시험의 현장에서는 직업윤리성을 갖기 위한 역할모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창조적 소수가 갖는 사회적 책임을 떠맡은 기독교육자, 기독교 영어평가자들이 능동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의 직업윤리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기준으로 작용하며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의 목적과 결과와는 무관하며 그 행위가 의무를 구성하는가에 달려있기에 강한 구속력을 갖는 편이다.<sup>32)</sup> 기독교 윤리는 조선말에 기독교인들이 양반 상놈의 계급사회를 만민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인권을 설파하면서, 또 가문이나 씨족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더 강조하면서, 한국 땅에 새로운 문화의식을 뿌리 내는데 공헌했다. 그 때만큼이나 지금 이 땅의 교육현장에 윤리적 측면에서 새로운 영어교육 및 평가운동에 기독교육자가 참여해야 할 때이다.

기독교육인, 크리스천 영어평가자들이 참여할 직업윤리 활동의 과제 중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기독교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의 직업 윤리성에 관한 학술대회의 개최하고, 관련 연구물의 발표 및 출판을 독려하면서 부적절한 교육평가 행위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이 절실하다. 개인 연구자들은 정부, 학회, 및 소속 학교의 윤리위원회와 연계하여 평가활동의 윤리성과 전문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의 왜곡된 사용과 준비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기독교 학부모와 공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열된 시험 경쟁 속에서

31) op. cit., McNamara, T. F., & Roever, C., *Language Testing: The Social Dimension* (Blackwell Publishing, 2006), 129-148.

32) op. cit., 송인규, 「미래 사회와 기독교 윤리」,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4권(제4호), 1999, 23-86.

진정한 삶과 생명을 살리는 직업윤리의 의미를 대중적인 경로 속에서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 직업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해 평가자 스스로 작성할 뿐 아니라 대중적인 논의와 활동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적 교육평가를 감당하려면 개방성과 능동성을 필요로 한다. ‘능동적으로’ 평가 자료를 문서화시키고, 관련 자료에 관한 접근용이성을 높이면서, 내용을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한 다음 투명하게 교육공동체 안팎의 더 많은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법률 제정으로 시험 기준의 채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윤리적 엄격함에 소홀한 한국의 경우도 시험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필요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능동적인 활동을 감당하려면 시키는 일만 수행하고, 하던 대로 일을 하는 관행으로는 부족하다. 기독교교육평가자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며 진실되지 못하여, 결국 이웃은 물론 형제도 믿지 못한 사회가 되지 못했다고 책망한다.<sup>33)</sup> 지금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능동적인 직업윤리 활동, 교육공동체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선지자적 교육캠페인이 필요할 때이다. 문서화 작업과 관련 법률 활동은 이러한 캠페인에 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규범을 문서로 만들고 공동체 내부에서 평가의 약속을 지키는 전통을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정직하지 않고 대충 일하는 곳일수록 약속된 문서가 없다. 문서로 남겨지더라도 허울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sup>34)</sup> 말쑥처럼 나쁜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 자신의 명예와 부를 욕심껏 채우려는 마음은 시들어 말라 죽는다. 정직하지 않은

33) 예레미야 9:3-5.

34) 시편 92:7

교육평가 현장은 시들러 말라 죽는 풀 뿐이다. 해마다 죽는 풀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규범이 없는 곳에서는 새 선생님이, 새 시험이, 새 교육정책이 반복해서 시작하다가 금방 말라 죽는 일만 반복할 뿐이다. 시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비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말씀처럼 의를 지키고 정직한 걸음만을 내딛는 기독교 교육자들의 교육전통만이 시들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자들이 역할모형을 맡고 윤리적 평가의 전통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윤리성과 전문성의 문제를 기독교단체에서 교육과정으로 이입시켜야 한다. 평가결과들이 부적절한 판단자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기독교단체에서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과 교육적 간극이 큰 상업화된 영어시험을 학생들이 응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면 해당 시험은 내용적 타당성에 상관없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윤리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시험의 사용은 학생들의 영혼이 다치게 하며 교육적 성장을 멈추게 한다고 자꾸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직하고 개인의 다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자들은 교육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교회와 기독교단체는 그러한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크리스천 영어평가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물질주의와 경쟁의 시대에서 전문가는 지식을 통해서 명예와 부를 획득하는 직업군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전문가는 기독교 직업윤리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청지기이다. 영어평가의 전문영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수험자와 학부모에 군림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시험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상처받는 수험자를 돕는 손이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게 하고,

교육자로서의 지성을 거둬나게 도와주는 크리스천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평가현장에서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전문 프로그램 안에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다.

시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지성만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윤리운동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할 수 있는 자질의 뿌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임을 기독교교육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 정직의 행동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sup>35)</sup> 말씀에 시험을 관리하고 준비시키는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자들이 도전을 받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sup>36)</sup>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전문가 사역을 행할 때 착하고 선해지며 의롭고 올바른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영어교육, 특히 물질주의와 경쟁 논리가 두드러진 영어시험의 현장을 소개하면서, 학제적 연구주제로도 주목을 좀처럼 받지 못했던 영어평가자의 직업윤리성 문제, 그리고 윤리규범화 및 관련 윤리 캠페인의 필요성을 주장해 보았다. 영어교육평가 현장의 윤리 문제를 상대적 인

35) 에베소서 5:8-9

36) 로마서 12:2

식론으로 풀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뿐더러 보편적 진리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조차 적절치 않다. 또한 강압적인 규범으로, 명령과 통제만으로 정직하지 않은 시험사용 및 준비의 관행을 압박하기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윤리의 문제를 하나님 공동체에 접속시켜 직업윤리 교육운동의 단초를 심어보자고 제안한다.

한국에서 영어시험을 시행하는 결과와 역류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책임은 시험 사용자 뿐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선다형 지필시험의 측정 시대에서 의사소통능력, 발화능력, 수행능력, 잠재력과 소질을 사정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전통에서는 단 하나의 기계적인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시험의 기능적 단면, 측정학적인 접근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개발과 시행, 준비와 학습의 전 영역에 자발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독교교육자들의 정직에 대한 각성, 교육 평가자를 위한 직업윤리 캠페인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일반 학교현장에서 윤리 활동이 시작되길 기다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며 속임수가 만연하다. 기독교사 혹은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자들의 직업윤리 캠페인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비윤리적 관행에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로우며,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기독교교육자의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영어시험을 만들고 시행하고 학습을 돕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깨끗한 평가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돕는 평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며 기독교교육자들의 협력네트워크가 요구된다. 미디어 속의 스타나 학원강사의 말을 교사나 교수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교육사회 분위기에서 교육 선진성을 갖기 위한 여러 세상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깨끗한 윤리의식을 갖기 위한 기독교지성의 활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없이 아름다울 것이다.

시험에 관한 비윤리적 관행의 뿌리는 결국 자기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미숙함 때문이다. 세상의 명예, 재물에 집착할 때 속임수가 생긴다. 기독교교육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의 교육현장을 다스리는 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적자원과 교육현장을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교육평가현장의 부적절한 관행에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쟁은 사람들과의 비교로 자신을 판단하지만, 탁월성은 사람들과의 비교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sup>37)</sup>

청지기 정체성이 아니라면 내 것을 챙겨야 하고 결국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마음의 중심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sup>38)</sup>라는 말씀처럼 기독교교육자들이 무너져가는 교육현장에 대한 악평을 멈추고 깨끗하고 공평한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교육운동의 밑알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는다. 공평한 평가자는 하나님뿐이다. 그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닦고자 하는 깨끗한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너무나 절실한 영어교육평가 현장이 우리 눈앞에 있다.

37) 박상진, 「입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발행처: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제18권, 2008, 99-129.

38) 마태복음 6:33.

## 참고문헌

- 김상득. 「의사와 환자의 윤리」.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4권 제2호, 1999.
- 문시영. 「정보통신윤리교육, 그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한국기독교교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0집, 2005.
- \_\_\_\_\_. 「윤리경영」, 그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의 과제」. 한국기독교교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7집, 2006.
- 박상진. 「입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제18권, 2008.
- 송인규. 「미래 사회와 기독교 윤리」.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4권 제4호, 1999.
- 양복만·문승태. 「교사들의 직업윤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진로교육연구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2007.
- 이경락. 「공인회계사의 직업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0권 2호, 2006.
- 정유석. 「한국 의료의 갈등상황-전문직 자율성의 위기」. 한국기독교교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6집, 2003.
- 한정화. 「성경적 기업윤리」.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1권 제1호, 1996.
- ALTE. *The ALTE code of practice*. <http://www.alte.org/cop/index.php>. 1994.
- Davies, A. *Principles of language testing*. Oxford: Blackwell, 1990.
- \_\_\_\_\_. Demands of being professional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4(3), 1997.
- Hamp-Lyons, L., Washback, impact and validity: ethical concerns. *Language Testing* 14(3), 1997.
- Hamp-Lyons, L. & Lynch, B. K. Perspectives on validity: A historical analysis of language testing conference abstracts. In Kunnan, A. J. (Ed.), *Validation in language assessment: Selected papers from the 17th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Long Beach*(253-276), Mahwah,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Inc. , 1998.
- Hawthorne, L, The political dimension of English language testing in Australia, *Language Testing* 14(3), 1997.
- ILTA, *Code of ethics for ILTA*. [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7&Itemid=47](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7&Itemid=47), 2000.
- ILTA, *Code of practice*. [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22&Itemid=133](http://www.iltaonline.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22&Itemid=133). 2007.
- Lynch, B, K, *In search of the ethical test*, *Language Testing* 14(3), 1997.
- McNamara, T, F, 20st century shibboleth: language tests, identity and inter-group conflict, *Language Policy* 4(4), 2005.
- McNamara, T, F. & Roever, C, *Language testing: the social dimension*, Blackwell Publishing, 2006.
- Shohamy, E, Democratic assessment, *Language Testing* 18(4), 2001.
- Spolsky, B, The ethics of gatekeeping tests: what have we learned in a hundred years?, *Language Testing* 14(3), 1997.
- Wiley, T. G, *Literacy and language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2005.
- ‘김포외고 문제 통제로 유출’, 동아일보, 2007년 12월 31일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2010133>,
- ‘SAT 강사가 전하는 현실’, 매일경제, 2010년 1월 24일자.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42212>,
- ‘또... 강남 학원강사가 SAT 시험지 유출’, 한국일보, 2010년 1월 24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24220648\\_2198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24220648_21980.htm),

논문투고일 : 2010. 04. 30

심사개시일 : 2010. 05. 12

게재확정일 : 2010. 05. 30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외 영어시험의 오용사례와 윤리규범 기준을 문헌 탐색을 통해 고찰하고 영어교육평가자의 윤리성 문제를 기독교학술담론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시험시행과 준비의 부적절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영어평가자의 직업윤리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평가자가 직업 윤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Davies(1997)가 제시한 윤리 규범, 실행 규범의 문서 작업과 규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규범과 지침만으로는 영어평가자의 윤리성을 높이기 힘들며 기독교사 혹은 기독교단체들이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윤리캠페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교육자들의 협력네트워크로 윤리적인 교육평가의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때이다.

**주제어** : 영어평가자, 한국, 직업 윤리성, 기독교교육자, 직업윤리캠페인

---